보도시점 2024. 10. 23.(수) 14:00 배포 2024. 10. 23.(수) 14:00

하얼빈 의거 115주년,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사상이 더 멀리 더 높게 퍼지길

- '24. 10. 24.~'25. 3. 31.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특별전 '안중근 서' 개최
- 10. 23. 유인촌 장관 개막식 참석해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115주년 기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10월 23일(수) 오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리는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115주년 기념 특별전 '안중근 서(書)' 개막식에 참석해 한국 독립운동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기린다.

이번 개막식에는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과 안중근의사숭모회 김황식 이사장, 안중근의사기념관 유영렬 관장 등이 함께한다.

문체부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중근의사숭모회, 안중근의사기념관과 함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10월 24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이번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안중근 의사의 친필 유묵을 통해 안중근 의사의 삶과 사상을 조망한다. 특히 안중근 의사가 독립에 대한 염원을 담아 쓴 유묵 '독립'은 2009년 이후 15년 만에 국내에 다시 공개하는 것이다.

유인촌 장관은 "안중근 의사는 누구보다 나라를 걱정했고, 교육자로서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했으며, 대한국 의군 참모중장으로서 위태로운 나라를 지키기 위한 발걸음에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었다."라며, "이 전시를 통해 묵향으로 피어난 의사의 숨결을 느껴보고, 그분의 숭고한 사상이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더 멀리 더 높게 퍼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문화기반과	책임자	과장	이관표 (044-203-2641)
		담당자	학예연구관	김호걸 (044-203-264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